

# 秋江 南孝溫의 「夫餘懷古」시 연구

李 東 宰\*

<目次>

- |                          |                            |
|--------------------------|----------------------------|
| I. 緒論                    | IV. 공정한 평가를 통한 백제사의 새로운 인식 |
| II. 史書 기록의 객관적 陳述을 통한 鑑戒 | V. 結論                      |
| III. 忠臣의 褒揚을 통한 文人象의 확립  |                            |

<국문 초록>

본고는 추강 남효온의 역사 회고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선행 연구로써 그가 지은 「부여회고」시를 살펴보았다.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그가 사위인 李攄와 함께 1491년 전국을 떠돌다가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를 유람하며 지은 前後 각각 10수씩으로 된 연작시이다. 이 시는 독립된 詩題가 따로 없고 각 시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10수가 한 편의 백제사에 대한 회고시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지어진 백제사에 대한 회고시는 서거정과 같은 훈구문인들은 단순히 弔古의 감정만 들어낸다. 반면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단순히 패망한 백제의 유허지인 부여를 찾아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한 시보다는 과거의 패망한 역사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지은 시이다. 따라서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 國立 公州大學校 漢文教育科 教授 / leedj@kongju.ac.kr

첫째,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백제사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詩化한 것이다. 그의 백제사에 대한 이해는 비록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넘지 못했지만, 史書의 기록을 충실히 따르고 자신의 감정 개입보다는 객관적 진술을 통해 후대의 교훈을 남기려고 하였다.

둘째, 추강의 「부여회고 시는 역사를 단순히 지나간 일을 기록한다는 차원을 넘어 현재를 돌아보고 나아가 미래의 시대에도 어떻게 정도를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즉 그가 成忠과 같은 충신들의 충절에 대한 동일시는 자신의 절의의식과 자신의 희생을 통해 현실의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조선의 새로운 문인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추강의 「부여회고 시는 그가 백제사에 대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은 시이다. 즉 그는 백제의 멸망을 전적으로 의자왕의 황음무도함에만 두지 않고 당시의 국정을 책임진 신하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고, 나아가 백제부흥운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고려와 조선 초기에 지어진 백제 회고시에서 보이는 유일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강의 「부여회고 시는 백제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교훈을 찾으려고 지은 寓意詩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懷古, 鑑戒, 文人象, 백제사, 의자왕, 성충, 백제부흥운동

## I. 緒論

추강 남효온은 조선 건국에 크게 기여한 南在의 후예로서 정상적인 환로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1478(성종 9년)년 단종의 생모인 顯德王后의 능인 昭陵의 복위와 세조의 명분과 의리에 저버린 왕위찬탈에 동조하여 權貴化된 훈구세력의 정치 지배하에서 자신의 개혁적 소신을 밝힌 「上成宗大王書」를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의에 빠져 유랑생활

로 생애를 마친 인물이다.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그가 사위인 李摠과 함께 1491년(성종 22년) 1월에 전국을 떠돌다가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를 유람하며 지은 前後 각각 10수씩으로 된 연작시이다.<sup>1)</sup> 이 시는 독립된 詩題가 따로 없고 각 시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10수가 한 편의 백제사에 대한 회고시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그의 시 가운데 백제사에 대한 회고의 정서를 드러낸 시는 「夫餘懷古」시 前後 20수 외에 「王洲津」 1수와 「熊津院遺興」 其一 1수 등 22수가 있다.

회고시는 과거의 영광이나 영웅적 행동을 오늘날의 그 폐허나 無用함과 대조시킴으로써 인간의 노력이 덧없음을 나타내는 부류의 시이다.<sup>2)</sup> 회고시 가운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들어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거나 혹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諷諭·논평하는 시를 영사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흔히 회고시 안에 영사시를 포함시키기도 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분류하지 않고 회고시의 범주 안에 넣어 함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조선 초기에 지어진 백제사에 대한 회고의 정서가 담겨진 시는 李石 亨 1수, 徐居正 2수, 李承召 8수, 崔淑精 1수, 金訢 1수, 曹偉 2수 등 모두 6인의 작가에 의한 11題 15首임에 비추어 추강이 22편의 작품을 남긴 것은 백제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3)</sup>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단순히 패망한 백제의 유허지인 부여를 찾아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한 시보다는 과거의 패망한 역사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였다. 즉 그는 백제의 패망과 같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1) 南孝溫, 『秋江集』(『韓國文集叢刊』 16), 「扶餘懷古」 十首 夾註, p.55, “與百源乘舟浮白馬江 過天政臺 釣魚臺 落花巖 浮山而返 時辛亥正月念三也”

2) 劉若愚 著·李章佑 譯, 『中國詩學』, 명문당, 1994, pp.100-102. 참조.

3)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이동재의 「조선초기 백제회고시 연구」(『동방한문학』 제52집, 동방한문학회, 2012, pp.317-350)가 참조가 된다.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교훈을 찾고자 역사적 유허지인 부여를 찾아 자신이 처한 當代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寓意를 담은 회고시인 것이다.

추강의 「부여회고」시에 대한 연구는 그의 문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검토를 한 연구에서의 언급<sup>4)</sup>과 역사 회고시를 연구한 몇 편의 논문<sup>5)</sup>에서 산견될 뿐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추강 남효온의 역사 회고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선행 연구로써, 그가 지은 「부여회고」시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의 역사인식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그가 지은 「부여회고」시를 첫째, ‘史書 기록의 객관적 陳述을 통한 鑑戒’, 둘째, ‘忠臣의 褒揚을 통한 文人象의 확립’, 셋째, ‘공정한 평가를 통한 백제사의 새로운 인식’으로 나누어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 II. 史書 기록의 객관적 陳述을 통한 鑑戒

회고시는 行旅者의 감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행시에서 배태되었지만 더 이상 행려의 고단함이나 그리움, 자연 감상의 기쁨 등을 말하지 않고, 역사유적의 방문을 계기로 죽음과 멸망의 필연성 등 인간사의 덧없음을 주요 내용으로 거듭난다.<sup>6)</sup> 선초의 문인들이 백제사에 대한 깊은

4) 김종구, 「秋江 南孝溫 文學研究」,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5) 김성언, 「秋江 南孝溫의 시에 나타난 高麗의 기억」, 『석당논총』 제42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8.

이동재, 「조선초기 백제회고시 연구」, 『동방한문학』 제52집, 동방한문학회, 2012, 진경환, 「부여회고시의 몇가지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제40집, 한민족문화연구학회, 2012.

6) 유혜영, 「‘회고’의 세 가지 개념에 관한 소고」, 『중국문학이론』 제9집, 중국

이해가 없이 단지 弔古의 정서만 드러낸 반면,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백제사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화하고 있다. 즉 그는 부여를 유람하며 단지 백제사에 대한 弔古의 감정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백제사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시화하여 후대의 감계를 삼고자 한 것이다.

그의 백제사에 대한 이해는 비록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의 「부여회고」시에서는 이들 史書의 기록을 충실히 따르고 자신의 감정 개입보다는 객관적 서술을 통해 후대의 교훈을 남기려고 하였다. 이는 그가 生來의 타고난 성격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추강은 자신의 조부의 시명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晉山世稿』를 편찬할 때 참관인 김수녕이 點定增損한 일과 신영희가 시에 뛰어난 평가를 받은 자신의 조부를 위해 따로 가집을 편찬하지 않은 일을 비교하여 강희맹의 일을 남들은 효라고 하고, 신영희 일은 불효라고 하나, 자신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하여, 신영희의 일을 진정한 효라고 칭찬하고 있다.<sup>7)</sup>

이러한 그의 의식은 백제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종래의 다른 문인과 다르게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에 몰입되어 백제의 멸망을 전적으로 의자왕의 황음무도에만 두지 않고 백제사를 객관적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를 시화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백제사에 대한 사실적 기록은 다음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학이론학회, 2007, p.14.

7) 南孝溫, 『秋江冷話』, “姜菊塢景醇, 編晉山世稿, 有如金參判壽寧點抹增損, 以快人目, 揚父祖詩名於後世. 人以此爲孝, 余則以爲不孝. 辛上舍永禧家有祖父文僖公之詩集, 友人有問, 子之家集, 可以印行乎. 辛曰, 我祖雖有文名冠世, 而家集所載, 無一可傳者, 嘗有挽一門生詩曰, 三十二而卒, 不幸同顏回. 此句之外無佳詩, 豈可刊行. 人以此爲不孝, 余則以爲孝也. 何者. 直述祖父之行藝, 祇乃孝道, 假使巧言飾筆, 以譽父母, 父母之鬼, 寧無媿心於冥冥之中乎.”

躍馬循江建國城	강물 따라 말달려서 나라의 도읍을 세우고
東明聖胤此經營	동명성왕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국가를 경영했지.
千年王氣一朝盡	천년 이어온 왕기가 하루아침에 다하여
三百後宮齊喪生	삼백 명의 후궁들이 일제히 목숨 잃었구나. <sup>8)</sup>

위 시는 백제의 건국과 계승, 그리고 패망의 결과를 『삼국사기』의 기록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화자는 자신의 주관적 감정의 개입이 없이 史書의 기록을 사실대로 시화한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를 세운 사람은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의 아들인 溫祚가 기원전 18년경에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끌고 내려와 한강 근처의 위례성에 자리 잡고 세운 나라로, 그 후 웅진과 부여로 천도하며 700여 년간이나 이어온 역사에 보기 드문 왕조였다.

그러나 660년에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자, 의자왕의 300여명의 후궁들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모두 낙화암에서 백마강으로 투신하여 꽃처럼 산화하였다. 이처럼 추강은 백제의 역사가 700여년이라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전설로만 유전되어온 삼천 명의 궁녀도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게 300명으로 기술하고 있다.<sup>9)</sup>

추강이 이처럼 史書의 기록을 가감없이 진술하여 후대의 거울로 삼고자 한 것은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半月城邊皆戰場	반월성 주변은 모두 싸움터가 되었건만
君王據案浪傳觴	군왕은 술상에 앉아 부질없이 술잔만 돌렸구나.
百年便作萬年計	백년 짧은 인생에 편안하게 만년 계획 세웠으니
門外安知蘇定方	성문밖에 소정방이 쳐들어올 줄 어찌 알았으리. <sup>10)</sup>

8)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前, 其一, p.55.

9) 추강과 동시대의 인물인 金訢은 시적 감흥을 고취시키기 위해 의자왕의 후궁을 3,000명이라고 과장하여 시화하고 있다. (金訢, 『顏樂堂集』(『韓國文集叢刊』15), 「落花巖」, p.212, “……三千歌舞委沙塵 紅殘玉碎隨水逝……”)

10)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後, 其二, p.64.

위의 시는 656년(의자왕 15년)부터 5년여 년 동안 의자왕이 신하들과 酒色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은 역사적 사실과 660년 6월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군이 침공하여 온 사실을 읊고 있다. 의자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매일같이 大王浦에 나아가 荒淫에 빠지고, 여기에 동조한 집권세력의 도덕적 해이는 국정을 더욱 문란하게 하였다. 또한 신라와의 빈번한 전쟁은 국력을 피폐시켜 민생을 파탄에 몰아넣었고, 외교적으로도 당나라와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였으며,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 신라를 협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백제의 신라 공격과 외교술은 신라로 하여금 나당군사동맹을 맺게 하여,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군의 침략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추강은 군왕이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宵衣旰食을 해도 어려운 데, 탐락에 빠지고 여기에 더하여 오랜 기간의 전쟁에 따른 국력의 소진과 민생의 피폐, 국외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외교의 실패로 인한 나당연합군의 협공을 받아 백제가 패망하였다고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여 훗날의 감계로 삼고 있다.

다음 시는 660년 6월 金庾信이 이끄는 5만의 신라군이 탄현을 넘어 백제를 공격한 사실을 시화한 것이다.

粧成百寶向誰誇	화장하고 온갖 장식한 궁녀들 누구 향해 자랑할까
炭峴旌旗瞥眼過	탄현으로 적의 깃발이 순식간에 지나왔네.
千古斷巖波浪裏	천고의 낙화암 절벽엔 물결이 일렁이는데
餘妍今入杜鵑花	아리따웠던 모습 이제는 두견화로 피어났구나. <sup>11)</sup>

위의 시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 5만여 명이 백제와 신라의 요충지였던 탄현을 넘어 황산성 전투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부여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부여성이 함락되자 의자왕은 구차하게 왕세자인 孝를 데리

11)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後, 其七, p.64.

고 응진성으로 피신하였지만, 그의 후궁들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부여성 북쪽 절벽에서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sup>12)</sup>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은 성충과 홍수가 신라의 군대가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극간을 오히려 “홍수는 오랫동안 죄수로 간혀 있던 사람이라,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것이니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여기고, 신라의 군대를 “신라 사람은 여러 번 우리에게 패한 일이 있는 터라 이제 우리의 兵勢를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깔보고 방비를 소홀히 하였었다.<sup>13)</sup>

추강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탄현으로 적의 깃발이 순식간에 지나왔네.”라고 축약하여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 역사적인 사실의 진행과정을 상상하도록 생략하여 시화한 것이다.

다음의 시는 소정방과 김유신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부여성과 응진성이 함락된 후 이루어진 降伏宴의 모습이다.

六百年來秋月盈	육백 년 백제 왕업 가을 달이 찬 듯하니
唐兵鼓角夜來鳴	당나라 군사 북소리가 밤에 울려 퍼졌네
青衣行酒馬江口	백마강 어귀에서 청의 입고 술 돌렸으니
忍聽百官哭泣聲	백관들의 통곡 소리 차마 들을 수 있으랴 <sup>14)</sup>

위 시는 화자가 개입하여 나당연합군에 항복한 의자왕과 그의 신료들

12)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 “濟古記云 扶餘城北角有大岩 不臨江水. 相傳云 義慈王與諸後宮知其未免 相謂曰 寧自盡 不死於他人手. 相率至此 投江而死. 故俗云墮死岩. 斯乃俚諺之訛也.”

13)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조>, “興首曰 唐病既衆 師律嚴明 況與新羅共謀埒角 若對陳於平原廣野 勝敗未可知也. 白江·炭峴我國要路地也. 一夫單槍 萬人莫當 宜簡勇士往守之 使唐兵不得入白江 羅入未得過炭峴 大王重閉固守 待其資糧盡 士卒疲 然後奔擊之 破之必矣. 於時大臣等不信言曰 興首久在縲楔之中 怨君而不愛國 其言不可用也.”

14)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 後, 其一, p.55.

이 항복 의식을 올리는 장면을 관찰자가 되어 진술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조와 「백제본기」, <의자왕> 20년 조에 의하면, 나당연합군이 수도인 부여로 밀려들어오자 의자왕은 태자孝와 함께 옛 수도인 공주로 피난하고, 제2왕자인 泰가 남아서 사비성[부여성]을 고수하려 했으나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1만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궤멸 당했다. 이어 나당연합군은 그 여세를 몰아 공주를 함락시키자, 의자왕과 태자 효도 660년 7월 마침내 투항하였다고 한다.<sup>15)</sup>

의자왕이 공주의 웅진성에서 투항하여 부여성으로 돌아오고, 이어 항복의식이 백마강 어구에서 이루어진다. 소정방과 김유신은 堂上에 앉고 의자왕은 당하에서 靑衣를 입고 술잔에 술을 따라 소정방에게 올리는 치욕을 당하였다. 이 때 함께 항복한 재상들은 堂下에 포복하여 나라를 잃은 치욕에 울음을 삼키며, 의자왕이 술잔을 올리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기실 의자왕이 청의를 입고 술잔을 올린 것은 匈奴族인 劉聰이 쯤나라 懷帝를 잡아다가 큰 술자리를 베풀고는 청의를 입혀 술잔을 올리게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sup>16)</sup>

이처럼 추강은 백제의 건국과 계승, 당나라 군대의 침략과 신라의 침공에 따른 항복의 순간을 史書의 기록을 加減없이 반영하고, 여기에 화자인 자신이 관찰자가 되어 그 상황을 증계하여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추강이 백제의 마지막 유허지인 부여에서 느낀 백제사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다.

15)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조>, “嘆曰 悔不用成忠之言 以至於此 遂與太子孝走北鄙 定方圍其城 王次子泰自立爲王 率衆固守 太子子文思謂王子隆曰 王與太者出而叔擅爲王 若唐兵解去 我等安得全 遂率左右追而出 民皆從之 泰不能止 定方令士超堞立唐旗幟 泰窘迫開聞請命 於時 王及太子孝與諸城開降.”

16) 『晉書』 卷5, 「孝懷帝紀」, “七年春正月 劉聰大會 使帝著靑衣行酒 侍中庾珉號哭 聰惡之.”

大王江水碧瑠璃    대왕포 강물 빛깔 유리처럼 푸르는데  
 斜日半天春雪飛    해 질 무렵 하늘 반쯤 봄눈이 날리네.  
 扶餘古事借誰問    부여의 옛일일랑 누구에게 물어볼까  
 颯飄晚風吹客衣    저물녘 큰바람이 나그네 옷에 부누나.<sup>17)</sup>

시의 전반부는 의자왕이 매일같이 찾아와 신하들과 주연을 베풀던 대왕포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화자는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에 이곳에 찾아와 보니, 봄눈이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이어 시의 후반부는 대왕포에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서성이는 화자의 모습이다. 화자는 백제의 유허지에 찾아왔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음에 가슴이 아픈데, 큰바람마저 불어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여기에서 ‘斜日’과 ‘春雪’은 화자가 느끼는 백제사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미래 모습의 예견이라는 重義로 읽힌다. 즉 ‘斜日’은 ‘저물어 가는 해’라는 현재적 사실과 ‘패망해가는 나라’라는 중의를 담고 있으며, ‘春雪’은 ‘봄 눈’이라는 자연현상과 ‘희망이 꺾인 당대의 현실’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처럼 추강은 生來의으로 타고난 성격과 강개한 기질, 여기에 더하여 그가 추구하는 이념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현실과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게 하여, 그로 하여금 「上成宗大王書」와 같은 극간을 하게 하였다. 또한 그의 이러한 성향은 역사에 눈을 돌리게 하였고, 지나간 역사에서 당대의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 잡아주려는 교훈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부여회고」시에서 『삼국사기』와 같은 史書의 기록을 중시하여 以事陳實로서 감계를 삼고자 하였다.

17) 南孝溫, 『秋江集』, 「玉洲津」, p.64.

### Ⅲ. 忠臣의 褒揚을 통한 文人象의 확립

추강이 살았던 성종조는 조선 전기에 있어 일종이 과도기였다. 그가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성종대에는 표면적으로 文治와 德治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훈구관료들과 새로 발흥하는 신진사류들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일군의 정치 세력이 바로 김종직 문하에서 수학하였거나 이들과 동조하는 세력으로, 이들은 모두 年少氣銳하였으며, 훈구파와는 달리 節義意識으로 무장하여 훈구파의 지배하에서 야기된 각종 사회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고 유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sup>18)</sup>

추강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동조하여 勳爵을 받고 여기에 더하여 권력과 경제력을 갖춘 權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제가 의자왕의 황음무도와 권귀들의 국정 농단으로 결국 멸망했듯이, 조선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 극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시무책인 「上成宗大王書」를 올려 소릉의 복위와 현실의 모순을 혁파할 것을 주장하는 등, 극간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즉 자신을 백제의 멸망 순간까지 충언을 일삼았던 成忠을 동일시하여 자신의 희생을 통해 조선의 새로운 문인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추강의 의지를 「부여회고」시를 통해 살펴본다.

추강의 당대의 새로운 문인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음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成忠一上獄中書    성충이 옥중에서도 글 한 번 올렸으니

18) 이동계,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서, 2004, pp.20-25. 참조.

白首丹心老有餘    백발의 일편단심은 늙어서도 너덕했네.  
 眼掛東門終不瞑    동문에 눈 매달고 끝내 감지 못하더니  
 會看歌舞化爲魚    마침내 가무하던 사람들 죽는 것을 보겠구나.<sup>19)</sup>

시의 전반부는 백제의 만고충신이었던 성충의 일편단심과, 그의 충간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성충을 옥에 가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성충은 옥에 갇혀있어도 끝까지 임금을 원망하거나 충심을 저버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국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충언을 한 인물이다.<sup>20)</sup>

시의 후반부는 중국 전국시대 뫼나라의 대부였던 伍子胥의 일화이다. 오자서는 ‘월나라는 오나라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뱃속의 질병과 같으므로 지금 멸망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간언하였는데, 오나라 왕인 부차는 오자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를 모함하여 자결하도록 명령하였다. 오자서는 한탄하며 門客에게 ‘자신이 죽으면 오나라가 월나라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눈알을 도려내서 東門 위에 걸어달라’고 당부하고는 자결하였다. 그 후 오나라의 부차는 西施라는 미인에 빠져서 국정을 소홀히 하였고, 그 틈을 타서 월나라는 국력을 회복하여, 이웃나라와 연합해서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이처럼 추강은 백제의 충신이었던 성충과 오나라 대부였던 오자서와 같이 부도덕한 權貴들이 임금의 聖聰을 가리고 국정을 농단하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충간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추강의 의지는 다음 시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狐鳴星孛災猶隱    여우 울고 혜성이 나는 조짐에 재앙이 숨었더니  
 興首忠言日月光    흥수의 충성스런 말만 해와 달처럼 빛났네.

19)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後, 其五, p.64.

20)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16년조>, “十六年 春三月 王與宮人淫荒 醉樂 飲酒不止. 佐平成忠極諫. 王怒囚之獄中 由是無敢言者. 成忠庾死 臨終上書曰 忠臣事不忘君 願一言而死. 臣上觀時察變 必有兵革之事. 凡用兵必審澤其地 處上流以延適 然後可以保全. 若異國兵來 陸路不使過沈峴 水軍不使入伎伐浦之岸 據其險隘以禦之 然後可也. 王不省焉.”

堪笑盲聾皆不察 우습구나! 장님 농아처럼 모두 살피지 못하고  
君臣醉飽太平觴 군신이 술에 취해 태평하게 술잔만 들렀다네.<sup>21)</sup>

시의 기구는 백제가 망할 조짐을 읊고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조와 『삼국유사』, 「기이」, <태종 무열왕>조의 기록에 의하면, “659년 수많은 여우가 의자왕의 궁중에 들어왔는데, 그중 흰 여우가 좌평 책상 위에 올라앉았다.”<sup>22)</sup>라고 하고, “서울 우물물과 사비수 물이 핏빛으로 변했다.”<sup>23)</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실제 상황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즉 흰 여우가 좌평의 책상위에 앉았다는 것은 간신들이 의자왕의 눈과 귀를 막고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우물과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것은 성충과 같은 충신과 무고한 백성들이 처형당했음을 암시한다.

시의 승구는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서 목숨을 걸고 극간한 홍수의 모습이다. 홍수는 의자왕의 사치와 유흥을 간하다가 유배를 당했지만, 백제가 羅唐聯合軍의 침공을 받자 그 방어책을 묻는 왕의 물음에 唐軍은 白江을 넘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은 炭峴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건의했으나, 대신들이 이를 불신하고 오히려 모함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sup>24)</sup>

추강은 임금이 荒淫에 빠져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조리한 행위를 죽음으로써 극간하여 유배를 당했지만, 이에 대한 조그만 원망도

21)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前, 其五, p.55.

22)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19년조>, “十九年 春二月 衆狐入宮中 一白狐坐上佐平書案.”

23)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조>, “二十年 春二月 王都井水血色 西海濱小魚出死 百性食之不能盡 泗泚河水亦如血色.”

24)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조>, “興首曰 唐病既衆 師律嚴明 況與新羅共謀 若對陳於平原廣野 勝敗未可知也 白江·炭峴我國要路地也 一夫單槍 萬人莫當 宜簡勇士往守之 使唐兵不得入白江 羅入未得過炭峴 大王重閉固守 待其資糧盡 士卒疲 然後奔擊之 破之必矣. 於時 大臣等不信. 言曰 興首久在縷榻之中 怨君而不愛國 其言不可用也.”

가지지 않고 오로지 국난의 극복을 위해 동참한 홍수와 같은 인물을 자기화하여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도 의자왕이 다스리던 시대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세조의 왕위 찬탈에 참여하여 많은 경제력과 정치권력을 얻은 靖難功臣들이 여전히 정권의 요직에서 앉아서 국정을 농단하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나아가 추장은 백제 부흥운동을 긍정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이 만약 백제사처럼 된다면 자신도 기꺼이 백제부흥운동에 참여한 인물처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受信平生報主謀    평소에 수신이 임금 은혜를 갚으려더니  
垂亡時節改前籌    나라가 망할 즈음에 전의 계획 바꾸었네.  
有意未成奔與國    품은 뜻 이루기 전에 고구려로 달아나니  
江山千里恨譙周    천리의 강산이 초주를 한스럽게 여기네.<sup>25)</sup>

시의 기구와 승구, 전구는 遲受信이 660년(의자왕 20) 백제가 패망한 뒤, 백제의 유민들을 모아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킨 역사적인 사실과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고구려로 달아난 사실을 시화하고 있다. 기실 지수신은 663년(신라 문무왕 3) 9월 나당연합군에 의해 周留城 등 여러 성이 함락을 당하자, 백제왕 扶餘 豊은 고구려로 달아나고, 왕자인 扶餘 忠勝 등은 그 무리를 이끌고 왜인과 함께 항복하였지만, 그 자신은 任存城에 웅거하며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흥운동의 거점이었던 주류성이 함락을 당하자 대부분의 성이 항복하고 말았으므로 임존성은 고립되었고, 또 부흥운동을 하다가 당에 항복한 黑齒常之·沙吒相如 등이 오히려 임존성을 공격해 오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663년 말 고구려로 달아났다.<sup>26)</sup>

25)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前, 其八, p.55.

26)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조>, “武王從子福信嘗將兵 乃與浮樗道琛據周留城叛 迎古王子夫餘豐嘗質於倭國者 立之爲王 西北部皆應 … 尋而

시의 결구는 지수신의 업적을 중국 삼국 시대 蜀漢의 光祿大夫를 역임한 譙周와 비교하여 미화하고 있다. 譙周는 魏나라가 쳐들어오자 後主인 유선에게 항복을 권유하여 항복하게 한 인물이다.<sup>27)</sup> 화자는 지수신의 부흥운동과 조주의 항복의 권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분명히 지수신과 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추강이 국가 사직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다음 시에서도 확인된다.

鶴唳風聲奔北日	학 울음 바람 소리에 패하여 달아나던 날
任存城主抗唐兵	임존성 성주는 당나라 군사에 항쟁했지
曹蜍李志生猶死	조여와 이지 같은 이는 살아서도 죽은 목숨
福信雖亡擅美名	복신은 비록 망했지만 미명을 독차지했네. <sup>28)</sup>

시의 기구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부여성이 함락되자, 웅진성을 비롯한 각 성의 장병들이 두려워서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던 상황을 말한다. 시의 승구는 백제부흥운동의 최후의 보루였던 임존성의 모습이다. 기실 의자왕의 종형제인 왕족 福信과 승려 道琛은 周留城을 근거로 군사들을 모아 661년 3월 사비성을 포위 공격하였지만 사비성에 주둔하던 당군의 저항과 신라군의 援兵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전세가 불리하여진 복신의 부흥군은 임존성으로 후퇴하여 흑치상지군과 합세하였지만, 복신이 도침을 죽이는 등 부흥군 지도층에 내분이 발생하고, 전세도 역전되어 부흥군의 거점이었던 663년 말 임존성도 함락됨으로써 백제부흥운동은 끝이 났다.<sup>29)</sup>

福信殺道琛 并其衆 豐不能制 但主祭而已 … 王子扶餘忠勝忠志等帥其衆 與倭人并降 獨遲受信據任存城未下 初黑熾常之嘯聚亡散 旬日間歸附者三萬餘人 定方遣兵攻之 常之據戰敗之 復取二百餘城 定方不能克 常之與別部將沙咤相如拒險 以應福信 至是皆降 … 二人訖取其城 遲受信倭妻子奔高句麗 餘黨悉平.”

27) 『三國志』, 『蜀志』, <後主傳>, “用光祿大夫譙周策 降於艾.”

28)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前, 其九, p.55.

시의 승구는 나당연합군에 항복한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평가이다. 화자는 나당연합군에 항복한 佐平 忠常과 常永, 達率 自簡, 恩率 武守와 仁守<sup>30)</sup> 등은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들은 중국 쯤나라 때 글씨를 대단히 잘 썼으나 인품이 워낙 부족하여 글씨가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曹蜎와 李志 같은 인물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시의 결구는 비록 백제부흥운동은 실패했지만 망한 나라를 뒤 찾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바친 복신을 미화하고 있다. 福信은 백제 武王 때의 武將으로, 무왕의 조카이자 의자왕의 從弟로 끝까지 임존성을 지키며 나당연합군에 항쟁한 인물이다.

이는 화자가 지수신이나 복신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에 국난을 치하면 이들과 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扶餘懷古」前, 其二에서 “하늘이 정한 군신 의리는 시대 차이 없으니, 못난 선비 지금 지나며 두 줄기 눈물 흘리네.”<sup>31)</sup>라고 하여, 불의에 항거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을 거듭 드러내 보이고 있다.

추강이 「上成宗大王書」와 같은 직언을 한 것은 의리를 저버리고 집권한 세조와 그 측근인 훈구파들을 간접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나아가 그의 절의의식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윤리도덕의 실천을 중시하여, 몸소 그것을 실천하였으며 나아가 당대의 사대부 관료들에게 도학적 실천윤리에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한 것이다. 즉 그의 「부여회고」시는 역사를 단순히 지나간 일을 기록한다는 차원을 넘어 현재를 돌아보

29) 주 27) 참조.

30)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항복하여 신라로부터 높은 품계를 받았다고 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조>, “百濟人員 竝量才任用 佐平忠常·常永·達率自簡 授位一吉滄充職總管 恩率武守 授位大奈麻充職大監 恩率仁守 授位大奈麻充職弟監.”)

31)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上, 其二, p.55, “... 天作君臣無異代, 小儒今過涕雙垂.”

고 나아가 미래의 시대에도 어떻게 정도를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역사상 成忠과 같은 충신들의 충절에 대한 동일시와 간신배에 대한 혐오감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절의의식과 현실의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문인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sup>32)</sup>

#### IV. 공정한 평가를 통한 백제사의 새로운 인식

인간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역사적 사실은 그 자체 속에 인간의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의 인식과 평가는 역사적 사실과 평가자, 즉 화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 역사적 사실이나 아니면 화자의 주관에 어떤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평가의 내용이 상반되게 된다.

주지하듯이 조선은 성리학을 이념으로 성립된 국가였지만 선초에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보다는 성리학의 실천 유학적 의미가 컸던 시기였다. 조선을 건국한 초기의 문인들은 모두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한 유학자들로 건국에 참여한 자부심과 유가적 이상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음세대인 세조조에 이르면 자부심과 소명의식보다는 자신과 집안의 사적인 권위와 이익을 위해 세조의 왕위 찬탈과 같은 불의에 동참하여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다.<sup>33)</sup>

추강은 조선 건국에 크게 기여한 南在의 후예로서 정상적인 환로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세조의 명분과 의리에 저버린 왕위찬탈과 여기에 동조하여 각종 이익을 독점하는 權貴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정치현실 하에서 자신의 개혁적 소신을 밝힌 「上成宗大王書」에 의한 정치적 금고는 그로 하여금 환로를 단념하게 하였다.

32) 김종구, 앞의 논문, p.125. 참조.

33) 이동계, 앞의 책, pp.20-25. 참조.

앞의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추강은 그가 생래적으로 타고난 성격의 발로로 다른 문인과 다르게 그는 백제사에 대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의식은 백제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종래의 다른 문인과 다르게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에 몰입된 주관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있다. 즉 그는 백제의 멸망을 전적으로 의자왕의 황음무도에만 두지 않고 당시의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고, 나아가 백제부흥운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고려와 조선 초기에 지어진 백제 회고시에서는 유일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추강이 다른 문인과 다르게 백제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본다.

먼저, 군왕이 짧은 향락을 즐긴 것에 대한 긍정과 국정을 잘못 보좌한 신하들에 대한 비판을 다음의 시에서 살펴볼 수 있다.

百歲光陰駒隙忙	백년 인생 손살갈아 구극처럼 빠르니
暫時遊豫亦何妨	잠시 동안 遊樂함이 또한 무슨 문제일까?
群臣也無擎天手	여러 신하들이 하늘을 떠받칠 역량이 없는지라
至使君王萬里行	군왕으로 하여금 이역만리 떠나게 했구나. <sup>34)</sup>

시의 전반부는 임금의 짧은 인생에서 잠시 오락을 즐기는 것을 긍정하지만 耽樂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기실 맹자는 “하나라 속담에, ‘우리 임금이 놀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나? 우리 임금이 즐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하였으니, 한 번 놀고 즐기는 것이 다 제후들의 본부기가 되었던 것입니다.”<sup>35)</sup>라고 하여, 임금도 국정의 여가에 즐기며 휴식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추강은 군주가 항상 피해야 할 세 가지 악행인 三風에 빠

34)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前, 其四, p.55.

35) 『孟子』, 「梁惠王」, 「夏諺曰, 吾王不遊, 吾何以休. 吾王不豫, 吾何以助. 一遊一豫, 爲諸侯度.”

져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됨을 경계<sup>36)</sup>하여야 하지만, 임금도 인간인지라 짧은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겼다. 추강의 이러한 의식은 여말선초에 지어진 여러 문인들의 역사회고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남다른 의식이다.

시의 후반부는 패망한 책임이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에게도 일정부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망한 왕조의 마지막 임금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매우 가혹하여, 왕조 멸망의 근본적인 책임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추강은 일반적인 평가와 다르게 임금이 황음에 빠지는 것은 임금을 제대로 보필할 역량이 없는 신하들 때문이라고 하여, 패망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군왕에게만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보필하는 신하에게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새로운 인식은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天政臺前宰相名	천정대 앞에 이름 적었던 백제의 재상들
唐羅兵下幾人存	나당 군사 칼날 아래 몇 명이나 살았을까?
吞聲忍見青衣酒	청의 입고 술 올려도 묵묵히 보기만 했으니
可媿落花巖下魂	낙화암에 떨어진 혼백에게 부끄럽다 하리라. <sup>37)</sup>

위의 시에서는 백제의 재상은 천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재상들을 비판하고 있다. 『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백제 때 재상을 임명하려면, 천거된 사람의 이름을 적어 函속에 넣고 봉한 뒤에 바위 위에 놓았다가 조금 뒤에 이름 위에 도장 흔적이 있는 사람을 취해 재상으로 삼았다.”<sup>38)</sup>라고 하였다. 이는 백

36) 『書經』, 「伊訓」, “敢有恒舞于宮 酣歌于室 時謂巫風. 敢有殉于貨色 恒于遊畋 時謂淫風. 敢有侮聖言 逆忠直 遠者德 比頑童 時謂亂風. 惟茲三風十愆 卿士有一于身 家必喪. 邦君有一于身 國必亡.”

37)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前, 其三, p.55.

3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8, 「扶餘縣」, “天政臺 縣北十里許 江北絕巘 有巖如臺 下臨江水. 諺云 百濟時欲拜宰相 則書當選者 名函封置巖上 須與取看名上 印迹者爲相 故名或稱 政事巖.”

제의 재상은 임금의恣意에 의한 임명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 준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는 재상권의 천부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상들은 임금의 황음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인 諫言權 등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동참하여 함께 耽樂을 즐겨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추강은 죄가 없는 궁녀들이 나라가 망하자 절개를 지키기 위해 낙화암에서 투신하였지만, 재상들은 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降伏宴에서 청의를 입고 술잔을 올리는 왕을 바라보는 재상들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이들을 역사의 죄인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다. 이는 추강이 국가의 패망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패망한 국가의 마지막 왕에게만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다스린 위정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나아가 추강의 인식은 우리 역사상 그 유래가 없었던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다음 시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鴻毛軀命復何戀	홍모 같은 목숨 다시 무엇이 아까울까?
國破君亡死合宜	나라와 임금이 패망하면 죽음이 마땅하리.
百萬丈夫皆被虜	백만의 장부들이 모두 다 사로잡혔지만
也無一箇如女兒	한 사람도 아녀자처럼 나약한 이 없었네. <sup>39)</sup>

위의 시는 화자가 백제의 멸망과 의자왕의 항복, 이어진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평가이다. 작자는 나라의 패망은 곧 모든 백성들의 죽음을 불러온다는 역사적 진리를 먼저 언급하고, 이어 패망해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초개처럼 버린 백성들의 충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조>에 의하면, 나당 연합

39)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後, 其七, p.64.

군은 6월에 부여성을 점령하고, 이어 7월에 의자왕과 태자 孝가 피신한 웅진성을 공략하자, 마침내 투항하였다.<sup>40)</sup> 그러나 이는 백제 중앙정부의 붕괴에 불과할 뿐 백제의 모든 것이 붕괴된 것은 아니었다. 당나라는 부여성을 함락시킨 후 백제 땅에 다섯 개의 都督府를 설치하고 통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여와 공주 등 백제의 일부 지역 외에는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고 백제 부흥군이 전국을 장악하였었다.

추강은 이를 “백만의 장부들이 모두 다 사로잡혔지만, 한 사람도 아녀자처럼 나약한 이 없었네.”라고 하여, 의자왕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항복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지만, 백성들이 부도덕한 왕과 위정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국가의 수호를 위해 부흥운동군으로 결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추강의 백제부흥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추강이 백제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에 대한 褒揚이다.

鶴唳風聲奔北日	학 울음 바람 소리에 패하여 달아나던 날
任存城主抗唐兵	임존성 성주는 당나라 군사에 항쟁했지.
曹蜎李志生猶死	조여와 이지 같은 이는 살아서도 죽은 목숨
福信雖亡擅美名	복신은 비록 망했지만 미명을 독차지했네. <sup>41)</sup>

시의 기구는 백제 부흥군의 거점이었던 한산 주류성이 함락되자 다른 성들도 연달아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두려워서 성을 버리고 달아나던 때를 말한다. 승구는 복신과 지수신 등이 임존성을 근거로 하여 끝까지 항거한 사실을 시화하고 있다. 시의 전구와 결구는 화자의 평가이다. 백제 부흥군을 이끌고 끝까지 저항을 한 복신과 지수신의 이름이 靑史에 남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40)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장왕 20년조>, “定方命士超堞立唐旗幟 秦寤迫開聞請命. 於時 王及太子孝與諸城開降.”

41)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前, 其九, p.55.

추강의 「부여회고」 전후 20수 가운데 백제부흥운동과 관련된 작품이 2수나 된다. 2수의 시에 등장한 인물은 지수신과 복신이지만 백제부흥운동의 지도자는 왕족 출신인 복신뿐만 아니라 달솔인 黑齒常之, 승려 道琛, 무장인 遲受信 등이 있었다. 그러나 흑치상지는 백제부흥군의 초기 지도자로 任存城을 거점으로 하여 3만 명의 병력을 수습하여 2백여 성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결국 당나라에 항복하고 부흥군의 최후의 거점이었던 임존성을 공격하여 부흥운동의 막을 내리게 한 인물이다. 그리고 승려인 도침은 복신과 권력 다툼을 버리다가 복신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인해 부흥군의 사기가 꺾여 부흥운동이 수포로 돌아가게 한 인물이다.<sup>42)</sup>

그리하여 추강은 그의 「부여회고」시에 흑치상지나 도침과 같이 항복하여 의리를 저버리거나 자신의 私慾에 눈이 어두워 대의를 저버린 인물을 배제하고 끝까지 大義滅私를 한 인물만 褒揚한 것이다.

이러한 추강의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은 다음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玉樹歌殘聽者哀	옥수가 노래 애잔하여 듣는 이 슬퍼하니
江南春岸簇莓苔	강남의 봄 언덕에는 푸른 이끼 뻗뻗하네.
狂王棄國歸千里	광왕이 나라를 버리고 천리 밖에 돌아가니
古祠一間向水開	옛 사당 한 칸만이 강물 향해 열렸구나. <sup>43)</sup>

시의 전반부는 회고시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즉 변하지 않는 자연의 현상에 살아져 간 옛 영화를 대비시켜 무상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노래는 당나라 현종의 애첩이었던 양귀비의 예상무의곡이나 陳나라 後主의 貴妃가 지었다던 玉樹後庭花가 그것이다.

시의 후반부는 화자가 백제의 유허지인 부여에서 목도한 당대의 생생

42) 양종국, 「백제 부흥운동과 웅진도독부의 역사적 의미」, 『백제문화』 제35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6, pp.119-130. 참조.

43) 南孝溫, 『秋江集』, 「扶餘懷古」 後, 其四, p.64.

한 현실의 모습이다. 비록 의자왕이 부도덕한 황음과 폭정으로 나라를 망하게 했지만, 백제가 망한지 800여년이 지난 지금도 백제의 왕을 기리는 사당이 여전히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백제의 유민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부여에는 지금도 의자왕을 조상하는 사당이 존재하는 것은 백제 부흥운동과 같은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온 결과라는 것이다.

추강은 그가 추구하는 유가의 이념에 반하는 부조리한 정치 현실에 대한 반발로 전국을 유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한 삶은 정치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국외자이기 때문에 내부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sup>44)</sup> 그리하여 추강은 다른 문인과 다르게 그는 백제 사에 대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백제의 멸망을 전적으로 의자왕의 황음무도에만 두지 않고 당시의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고, 나아가 백제부흥운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고려와 조선 초기에 지어진 백제 회고시에서는 유일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 V. 結論

본고는 추강 남효온의 역사 회고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선행 연구로써 그가 지은 「부여회고」시를 살펴보았다.

추강 남효온은 조선 건국에 크게 기여한 南在의 후예로서 정상적인 환로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1478(성종 9년)년 성리학적 가치관인 義理論에 입각하여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昭陵의 복위 등 폐정의 개혁을 담은 「上成宗大王書」를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의에 빠져 유랑생활로 생애를 마친 인물이다.

44) 김종구, 앞의 논문, p.25. 참조.

조선왕조가 새로 개창된 이후 100여년이 지난 成宗朝부터는 건국초기 새로운 왕조에 대한 찬양과 지난 왕조에 대한 폄훼보다는 나라의 수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주류를 이루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전 왕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우의를 담은 회고시가 지어지기 시작한다.<sup>45)</sup>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그가 사위인 李摠과 함께 1491년 전국을 떠돌다가 부여를 유람하며 지은 前後 각각 10수씩으로 된 연작시이다. 이 시는 독립된 詩題가 따로 없고 각 시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10수가 한 편의 백제사에 대한 회고시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 지어진 백제사에 대한 회고시는 서거정과 같은 훈구문인들은 단순히 弔古의 감정만 드러낸다. 반면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단순히 패망한 백제의 유허지인 부여를 찾아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한 시보다는 과거의 패망한 역사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지은 시이다. 즉 그의 「부여회고」시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교훈을 찾고자 하여, 자신이 처한 當代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寓意를 담은 회고시이다.

이러한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백제사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詩化한 것이다. 그는 비록 백제사에 대한 이해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넘지는 못했지만,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자신의 감정 개입보다는 객관적 서술을 통해 후대의 교훈을 남기려고 하였다.

문학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작가의 사상이 반영되지만, 반대로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꿈꾸게 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게 하는 기제로도 작용한다.<sup>46)</sup> 그의 「부여회고」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45) 이동재, 앞의 책, pp.25-30. 참조.

46)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89, pp.267-268. 참조.

경험에 비추어 追體驗化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역사적 사실은 그 자체 속에 인간의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의 인식과 평가는 역사적 사실과 평가자, 즉 화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 역사적 사실이나 아니면 화자의 주관에 어떤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평가의 내용이 상반되게 된다. 주지하듯이 조선은 성리학을 이념으로 성립된 국가였지만 선초에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보다는 성리학의 실천 유허적 의미가 컸던 시기였다.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역사를 단순히 지나간 일을 기록한다는 차원을 넘어 현재를 돌아보고 나아가 미래의 시대에도 어떻게 정도를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즉 그가 成忠과 같은 충신들의 충절에 대한 동일시는 자신의 절의의식과 자신의 희생을 통해 현실의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조선의 새로운 문인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그가 백제사에 대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은 시이다. 그는 타고난 성격이 공정하고 강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 정치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국외자로 살았기 때문에 내부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백제의 멸망을 전적으로 의자왕의 황음무도함에 두지 않고 당시의 국정을 책임진 신하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였고, 백제부흥운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추강의 「부여회고」시는 백제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교훈을 찾으려고 지은 寓意詩라고 할 수 있다.

<參考 文獻>

- 金 訥, 『顏樂堂集』, 『韓國文集叢刊』 15,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南孝溫, 『秋江集』, 『韓國文集叢刊』 16,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孟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68.  
이상옥 역해, 『書經』, 한국출판협동공사, 1983.  
이행 외,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1982.  
일연·이동환 역주, 『삼국유사』, 삼중당, 1973.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1.2.3.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김성언, 「秋江 南孝溫의 시에 나타난 高麗의 기억」, 『석당논총』 제42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8.  
김종구, 「秋江 南孝溫 文學研究」,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양종국, 「백제 부흥운동과 웅진도독부의 역사적 의미」, 『백제문화』 제35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6.  
오석원, 「유교 역사관의 재구성」, 『人文科學』 제29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劉若愚 著·李章佑 譯, 『中國詩學』, 명문당, 1994.  
유혜영, 「회고」의 세 가지 개념에 관한 소고, 『중국문학이론』 제9집, 중국문학이론학회, 2007.  
이동재,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서, 2004.  
——, 「조선 초기 백제회고시 연구」, 『동방한문학』 제52집, 동방한학회, 2012.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89.  
진경환, 「부여회고시의 몇가지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제40집, 한민족문화연구학회, 2012.

### Abstract

*A Study on Chugang(秋江) Nam Hyo-on(南孝溫)'s poem,  
<Buyeo Hoego(夫餘懷古)> / Lee Dong Jae\**

This paper, as a preliminary study for understanding Chugang Nam Hyo-on's historical reminiscent poems in general, has taken a look at his created poem 'Buyeo Hoego (a reminiscence of Buyeo).'

Chugana's poem, 'Buyeo Hoego' is a sequential poem consisting of the first and second halves with 10 sub-poems for each half, which he created while doing sightseeing in Buyeo in the middle of his travel over the whole country with his son-in-law, Lee Chong in 1491. This poem can be said to be a reminiscent poem about the history of Baekje with 10 sub-poems as it does not have independent poetic themes for the sub-poems, which in turn are clos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Hungu literary men like Seo Geo-jeong only expressed simple feelings of condolence in their reminiscent poems about the history of Baekje written in the early Joseon period. Contrastively, Chugang's poem 'Buyeo Hoego' was one that was created for seeking a way to solve the real problems in the times, in which he lived from the previous history of falling in Buyeo, a historic site of the fallen Baekje rather than singing the transience of human conditions. Chugang's poem 'Buyeo Hoego' can be understood as follows.

First, the poem is a poeticization of Chugang's deep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Baekje as a whole. Though his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Baekje did not overcome the records in 『Samguksagi』 and 『Samgukyusa』, he tried to thoroughly follow them and leave lessons for the next generations with

---

\*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ino-Korean Class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dj@kongju.ac.kr

his objective description rather than with his emotional engagement.

Second, Chuganga's poem 'Buyeo Hoego' is an expression of his will to reflect upon the present beyond simply recording past events, and to show further how one should keep his right also in the future. That is to say, his identification of himself with such loyal subjects like Seong Chung is an attempt to establish a novel figure of literary man who should be able to resist the injustice in reality via his own fidelity and sacrifice.

Third, Chugang's poem 'Buyeo Hoego' is one that was created from a fairer and more objectiv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Baekje. That is to say, he did not ascribe the falling of Baekje completely to King Uija's atrocious boozing and womanizing but recognized that the subjects at that time should share responsibilities as they were in charge of national politics. Furthermore, he thought of the Baekje-reconstruction movement as positive. That was a unique recognition among other reminiscent poems about Baekje created in th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Consequently, Chugang's 'Buyeo Hoego' is an allegoric poem that he created to find out a method or lesson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times in which he lived, via his novel recognition of the history of Baekje.

**【Key words】** reminiscence(懷古), model(鑑戒), figure of literary man(文人象), history of Baekje(百濟史), King Uija(義子王), Seong Chung(成忠), Baekje-reconstruction movement(百濟復興運動)

투고일 : 4월 30일, 심사일 : 6월 7일, 게재확정일 : 6월 14일